

미래산업으로 나아가는 블록체인… 법·정책 제도화 속도

업비트 D 컨퍼런스

전 세계적으로 실물금융 직접 적용 기술·통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트럼프 정부 코인시장 규제완화 금융기관 참여 유도… 자본유입 기대

국내 대표 블록체인 행사 ‘업비트 D 컨퍼런스(UDC)’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성, 미래 방향성 등이 긍정적으로 논의됐다. ‘트럼프 트레이드’로 가상자산이 강력히 떠오른 만큼 블록체인의 실물 경제로의 확장이 기대되고 있다.

14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개막한 이번 행사는 국내 대표 블록체인 행사로 40여명의 글로벌 블록체인 전문가들과 함께 최신 기술 동향과 산업의 미래를 논의했다. 이날 송치형 두나무 회장은 개막사를 통해 “블록체인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기술이 아니다”라며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 산업 가치를 설명했다. UDC는 두나무가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과 생태계 성장, 대중화를 위해 2018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국내 대표



마이클 케이시 분산형AI협회(DAIS) 협회장(전 코인데스크 컨센서스 의장)이 1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업비트 D 컨퍼런스(UDC) 2024’에서 ‘[D:Sight] 현실을 변화시키는 블록체인, 미래를 향한 거대한 흐름’을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신하은 기자

블록체인 컨퍼런스로 올해 7회째를 맞는다.

송 회장은 “실물연계자산(RWA)의 활성화, 글로벌 시장에서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대체불가토큰(NFT) 티켓 등 블록체인이 창출한 현실의 변화가 더 가깝게 다가오고 있다”며 “한국에서는 올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며 제도권화가 시작됐으며, 정부가 블록체인 사업들을 적극 지원하면서 블록

체인이 미래 산업으로서 가치있게 인정돼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여전히 블록체인에 대한 의문과 다양한 도전이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실물 금융에 직접 적용돼가고, 법과 정책적으로도 제도화되고 있으며, 기술뿐 아니라 통신업, 유통업,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이 활용되고 있다”면서 “기존 주요 국가뿐만 아니라 중동, 아시아에서도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강

조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개최되는 UDC 2024는 ‘블록체인: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Blockchain: Powering Real World Change)’을 주제로 진행된다. 블록체인 이 다양한 산업으로 확장되고 현실을 변화시키는 흐름을 ▲트렌드 ▲금융 ▲정책 ▲기술 ▲문화 등의 주제로 나눴다.

UDC 2024의 첫 번째 키노트 무대는 전 코인데스크 컨센서스 의장인 마이클 케이시와 이석우 두나무 대표의 대담이 진행됐다.

마이클 전 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으로 인한 (코인 시장 내) 영향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라며 “바이든 정부에서의 규제·제한은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는 상당히 해로웠다. 이러한 문제가 사라진다면 은행 등 주류 기관들의 참여를 이끌면서 더 큰 자본을 유입시킬 수 있고, 결국에는 더 큰 시스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바이든 정부에서 제한했던 법 준수 문제로 인해 많은 금융 기관들이 참여를 많이 주저했던 만큼 트럼프 정부의 코인

시장 규제 완화가 금융기관의 진입로를 열어 줄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어 비트코인 현물 ETF 시대가 열린 이후 관심이 크게 늘어난 은행권 동향, 세계 각국 정책 관계자들이 들려주는 규제 방향, 블록체인 보안전문가들이 전하는 웹3 시대 맞춤형 보안 등 최근 주요 화두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콘텐츠·문화 세션에서는 ‘L VMH’의 사샤 로월드 경영 고문이 명품 브랜드들이 블록체인을 활용한 이력 관리에 주목하는 이유에 대해 공유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번 UDC 2024에는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 산업의 핵심 변화를 주도하는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 주목된다. 대표적으로 금융·비즈니스 세션에는 카이코(Kaiko)의 키스 여 아태지역 총괄 책임, 리플(Ripple)의 로스 애드워즈 디지털 금융기관 분야 상무, 서클(Circle)의 얀키 찬 부사장, 파소스(Paxos)의 윌터 헤서트 최고 전략 책임자 등이 스테이블 코인을 주제로 심층 토론을 진행한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JP모건 “주식·채권 포트폴리오 60 대 40 구성”

내년 장기자본시장가정 전망치

주식 수익률 6.7%~8.1% 예상

채권, 10년 美 국채 수익률 年 3.9%

한화운용, DB형 퇴직연금 등 주력

“주식과 채권의 포트폴리오를 60대 40으로 구성, 향후 10~15년 동안 장기 평균을 상회하는 6.4%의 수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

제이피모건자산운용은 한화자산운용과 함께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언론 세미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5년 장기자본시장가정(LTCMA)’ 전망치를 발표했다. 캐리 크레이그(Kerry Craig) 제이피모건자산운용 글로벌마켓전략가는 “수익 전망치는 작년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지난 20년간의 평균 수익률과 유사하다”라며 “적극적 운용과 대체 자산 편입을 통해 이러한 전망을 개선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이피모건자산운용의 LTCMA는

전 세계 100명이 넘는 업계 최고 수준의 포트폴리오 매니저, 리서치 애널리스트, 전략가들의 양적·질적 정보를 결합한 연구 결과물이다. 이 전망은 19개 기준 통화로 200개 이상의 자산군의 위험과 수익에 대한 전망을 제공한다.

제이피모건자산운용은 주식의 경우 현재의 높은 평가를 감안해 6.7~8.1%, 채권은 10년 미국 국채 수익률이 연평균 3.9% 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리 하락과 자금 회수 환경이 개선되면서 사모 주식의 투자 매력도가 높아졌으며, 실물 자산 중에서는 미국의 신흥 지역 등 비핵심(non-Core) 부동산이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 경제에 대해선 내년 경기침체 위험이 낮게 유지돼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크레딧 채권에 주목하며, 기업이 채권에 대한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낮아지면 스프레드(위험채권과 무위험채권의 금리격차)가 완만해지면서 이자 수익이 매력

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식의 경우 중기적으로는 실적 개선에 힘입어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밸류에이션(가치 대비 주가 수준)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봤다. 현금 창출력을 고려해 미국 주식을 선호하며, 재평가 잠재력을 고려했을 때 일본 주식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국내 주식에 대해서는 글로벌 GDP 성장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평가하며 최근 글로벌 성장 속도가 둔화되면서 한국 증시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한국이 인공지능(AI) 관련 장기적인 수혜국이 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한편 한화자산운용은 이날 세미나에서 국내 공모펀드 시장이 일반 리테일에서 연금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하며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시장과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타겟데이트펀드(TDF)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원관희기자 wkh@



지난 13일 홍콩에서 금융감독원·지자체·금융권 공동 홍콩 투자설명회(IR)가 개최됐다. 이날 (왼쪽부터)이정호 미래에셋증권 부회장,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 진옥동 신한금융투자 회장, 유형철 주흥공대한민국총영사관 총영사,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함영주 하나금융투자 회장, 리준보 CITIC CLSA 대표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이복현 “자본시장 선진화로 증시활력 도모”

“기업지배구조 개선 개정안 확정할 것 대체거래소 도입 등 투명한 환경 조성”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에 있어서 기업들의 투자자 소통 강화와 자발적 참여를 위해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한계기업 상장폐지 심사절차 단축 등 상장제도 정비를 통해 증시의 활력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3일 지방자치단체, 금융권 등과 홍콩에서 공동 개최한 투자설명회(IR)에서 이같이 말하며 한국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 노력과 지향점을 제시하고, 강력한 정책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날 이 원장은 “주주 친화적 기업경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확정하겠다”며 “스튜어트십 코드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제고, 합병공시 및 합병가액 외부평가 기준 강화, 결산배당 절차 개선 등 주주 권리를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자본시장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상장기업 영문공시의 단계적 의무화, 국제표준전산언어(XBRL) 기반 재무정보 보고체계 가동 등을 통해 공시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체거래소(ATS) 도

입,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증권시장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는 홍콩 소재 글로벌 투자회사 임직원 약 230여명을 대상으로 한국 자본시장 선진화의 목적과 경과 등을 설명하고, 금융중심지(서울시·부산시)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 참석한 피터스타인 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ASIFMA) 대표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은 한국의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의 결실”이라며 “향후 공매도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되고 한국시장이 MSCI 선진지수에 편입되어 외국인의 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리준보 CITIC CLSA 대표는 “한국의 자본시장 선진화 및 기업 밸류업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를 기원한다”며 “한국과 홍콩 간 상호 협력 강화는 아시아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정부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 선진화 경과에 대해 해외투자자와 소통할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해외 금융회사의 국내 진입 및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지원을 통해 한국 금융산업(K-Finance)의 글로벌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하은 기자

피치

삼성증권 신용등급 상향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가 삼성증권의 신용등급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

14일 삼성증권에 따르면 피치는 삼성증권의 신용등급을 기존 ‘BBB’에서 ‘BBB+’로 상향 조정하고, 전망을 ‘안정적’으로 평가했다. 삼성증권의 신용등급이 상향된 것은 2022년 10월 BBB 등급을 받은 지 2년 만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이번 신용등급 상향은 삼성증권의 견고한 재무 건전성과 양호한 수익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삼성전자, 4년 5개월만에 ‘4만전자’로 풀썩

4만 9900원에 장 종료

삼성전자가 5거래일 연속 약세를 기록하면서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 밀려났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거래일보다 1.38% 하락한 4만9900원에 장을 종료했다. 지난 7일부터 5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자 5만원선을 방어하지 못하고 4만원대로 내려온 모습이다. 이는 지난 2020년 6월 15일 증가였던 4만9900원 이후 4년5개월 만

에 최저가다.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지난 9월 1일부터 코스피 외국인 순매도는 14조 2000억원 정도인데, 동기간 삼성전자 순매도가 15조 4000억원”이라며 “외국인 순매도의 약 110%가 삼성전자 한 종목이었다는 의미”라고 짚었다.

반면, 동일 기간 같은 반도체 업종은 SK하이닉스는 1조 2000억원 순매수하면서 상반되는 흐름을 보였다. 코스닥 역시 4750억원을 사들였다.

/신하은 기자